

# 2023년 배움분과

배움지기 손가락

## 앞을 내다보며

대안학교가 처음 만들어질 때를 상상합니다. 아이에게 자유로운 세상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어른들이 모여 공교육과 다른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고, 함께 배우며 아이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학교'라는 틀에 적응하여 교사, 학부모, 학생으로 자리가 나뉘지기 시작합니다. 역할을 구분하니 공동체가 잘 돌아가게 되었지만, 처음에 무엇을 이상으로 삼았는지 점점 잊혀집니다. 세상이 변하니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심을 잡기 힘들어집니다.

대안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우듯이 어른들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안학교 구성원이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안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공부해나가야 합니다. 기존 사람들이 새로운 구성원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길을 겸손하게 성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우리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안교육이 더 넓게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바람과 달리 대안학교 입학생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학교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학교를 홍보해서 입학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도 입학 전 3번 학교설명회를 참석했습니다. 대안교육을 이해해야 했고, 수원칠보산자유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알아야 했고, 대안학교가 아이와 맞는지 판단해야 했습니다. 3년 동안 관심을 가졌지만 어떤 사람들이 모여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기에는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2023년 배움분과는 대안교육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구성원+지역주민)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우리학교를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안교육, 대안학교, 사람들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함께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함께 온 자녀들은 학교에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어른과 아이가 그 과정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학교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싶습니다.

## 학부모-학교 성장 프로그램으로서 아이와 개울

2022년에는 '아이와 개울'을 처음 열어 대안교육, 우리학교를 주제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아이와 개울'을 <학부모-학교 성장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신입입생 구성원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배우고 변화하는 과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학교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새로운 논의들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 계속 고민해야 합니다. 아래는 제가 생각한 주제입니다. 물론 주제는 논의를 통해 바꿀 수 있습니다.

- 1) 4월: 대안교육이란 무엇일까요?  
 -대안교육 운동의 전반적인 흐름을 정리하기  
 -우리 학교의 역사를 설명하기
  
- 2) 6월: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배울 수 있을까요?  
 -자유, 생명 등 우리 학교가 지향하는 가치를 설명하기  
 -철학 실현을 위해 구성원이 함께 하면 좋은 일에 대해 논의하기
  
- 3) 8월: 대안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울까요?  
 -우리 학교의 철학과 가치가 교육과정과 수업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보기  
 -과목별, 교사별 수업의 방법 알아보기
  
- 4) 10월: 대안학교에는 누가 있을까요?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의 관계를 살펴보기  
 -행복한 학교 생활 만들기를 위해 구성원이 노력할 것 찾기
  
- 5) 12월: 대안교육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새로운 구성원에게 듣는 우리 학교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우리 학교가 나아가는 방향을 함께 설정하기

아이와 개울은 해당 주제와 가장 잘 맞는 사람을 섭외해 자기 이야기를 30분 동안 할 수 있게 구성하고, 1시간 이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적절한 사람이 없다면 관련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눠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참여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비슷한 크기로 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 자발적이고, 다양하고, 도움되는 대안교육 공부 모임

2022년 민들레 모임은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서 그 정체성을 고민했습니다.

기존 민들레 모임 체제를 유지하지 않고 잠시 멈춰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구성원들이 그 필요성을 느끼고, 새롭게 해 나갈 힘을 축적하고 싶었습니다. 1년이 지나니 그런 의도가 어느 정도 작용된 것 같습니다. 여러 구성원들이 민들레 모임을 왜 다시 하지 않냐고 저에게 묻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반응이 슬프기도 합니다.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사실 배움분과에서 2달에 한 번 민들레 모임을 공지하고 열었거든요.)

2023년 민들레 모임은 대안교육 공부모임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진행된 잡지 민들레 읽기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교육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모임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자발성, 다양함, 지원입니다.

우리 학교에는 여러 모임이 있습니다. 반모임, 민들레 모임, 분과모임, 전체회의, 총회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모임에 참여하는 이유는 의무감, 자발성이 있습니다. 어느 한 요소만 작용하지는 않지만 경중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의무감이 더 크게 작용하는 모임은 반모임, 전체회의, 총회 등입니다. 민들레, 분과 모임 등은 참여하고 싶은 사람만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에 참여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사람이 좋아서, 주제가 좋아서.

좋은 의도로 만든 모임도 함께 하는 사람들과 맞지 않으면 발길이 잘 가지 않습니다.

서로 만나는 것이 즐거워서 만든 모임도 의미를 찾지 못하면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이를 찾기 위해 1) 누구와 함께 할지, 2) 모임의 지향점은 무엇인지, 3) 어떤 계획을 세워 공부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모임 꾸릴 수 있습니다.

-배움분과와 지역주민이 함께 대안교육의 기초를 만들기 위해 읽는 민들레 모임

-아빠들을 중심으로 관계를 다지기 위해 읽는 민들레 모임

-교사, 학부모가 대안학교 교육과정을 공부하기 위한 모임

끝에 첨부된 [서식1]의 내용을 작성해서 배움분과에 제출하면 운영위를 거쳐 우리학교 정식 공부모임이 됩니다. 그러나 단순한 '인정'만으로 사람을 모으고, 주제를 정하고, 계획을 만드는 복잡한 과정을 실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공부모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책 1권정도 살 수 있는 지원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은 2가지 효과를 가집니다. 먼저, 모임은 시작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게 합니다. '보상'은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원초적 자극제입니다. 다음으로 모임을 진행하게 만듭니다. 지원금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미안한 감정이 생깁니다. 그 돈을 쓰기 위해서라도 만나야 합니다. 만나다 보면 또 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 뒤를 돌아보며

작년 이맘 때 배움분과장을 하겠다고 했을 때, '장'이라는 글자를 머리 속에 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유학교의 배움을 이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수단을 찾은 것입니다. 한 해 더 배움지기를 하겠다고 결심한 이유도 작년과 비슷합니다. 저는 자유학교 구성원 중 한 명으로,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이어가고 싶을 뿐입니다. 올해는 우리 학교를 넘어서 지역 사회와 함께 이야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저 혼자 빨리 간 건 아닌지 돌아봅니다. 올해는 멀리 가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제1 배움지기, 제2배움지기, 제3배움지기...의 출현을 기대합니다. 여러 구성원이 나서서 다양한 배움이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실천하면서 우리만의 배움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서식1] 예시

모임명	배움분과 대안교육 공부모임
참여 구성원	배움분과원(순가락. ) + 지역주민
배움 지기	순가락
공부 계획	2달에 1번 저녁 시간을 정해 민들레 읽고 나누기